

돼지 도체등급기준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

1. 도체등급제 실시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유통에 도체등급제도를 도입한 것은 1992년 7월 1일부터이다. 현재 돼지 도체등급제도는 그 역사가 일천하여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는 초보적인 단계로서, 등급기준 내용이나 그 실시 의의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돼지 사육농가나 유통업 종사자 및 식육상인들은 물론, 일반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이해시키지 못하여 돼지 도체등급제도의 조기 정착에 부담이 되고 있다.

돼지 도체(지육)등급기준은 양축농가에서 사육되어진 돼지가 도축장에 출하되어 도축후 생산된 돼지 도체(지육)를 그 도체의 상품적 가치, 즉 그 도체에서 생산되어지는 돼지고기의 육질과 그 도체에서 불가식 부

분을 제외하고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돼지고기의 생산수율을 모두 고려하여 분류, 등급화하는 가치기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돼지 도체등급기준 내용은 어느 나라에서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여건, 즉 돼지 사육여건, 식육처리 기술, 소비자들의 돼지고기 선호도 및 돼지고기 유통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항상 개정하거나 보완하여 최상이 아닌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돼지 도체등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등급기준이 만들어져야 하고, 등급기준을 제도로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의 준비가 요구되며, 등급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판정할 수 있는 고도로 숙련된 등급



김용곤 과장
(축산시험장 영양이용과)

사가 양성되어야 한다. 또한 도축장내에서 등급사가 등급을 평가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인력 그리고 재원(돈)이 요구되는 데, 왜 그러한 대가를 치르면서 도체등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는가?

그것은 돼지 도체는 하나의 상품으로서 거래라는 필연적인 과정을 거쳐 소유주가 바뀌게 되며, 돼지 도체는 모두 같은 상품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가치 기준 때문에 항상 마찰의 요인을 안고 있게 되는데, 등급기준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가치기준에 따라 양돈 농가가 출하한 돼지 도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므로 식육 도매시장에서 상품으로서 돼지도체의 거래를 원활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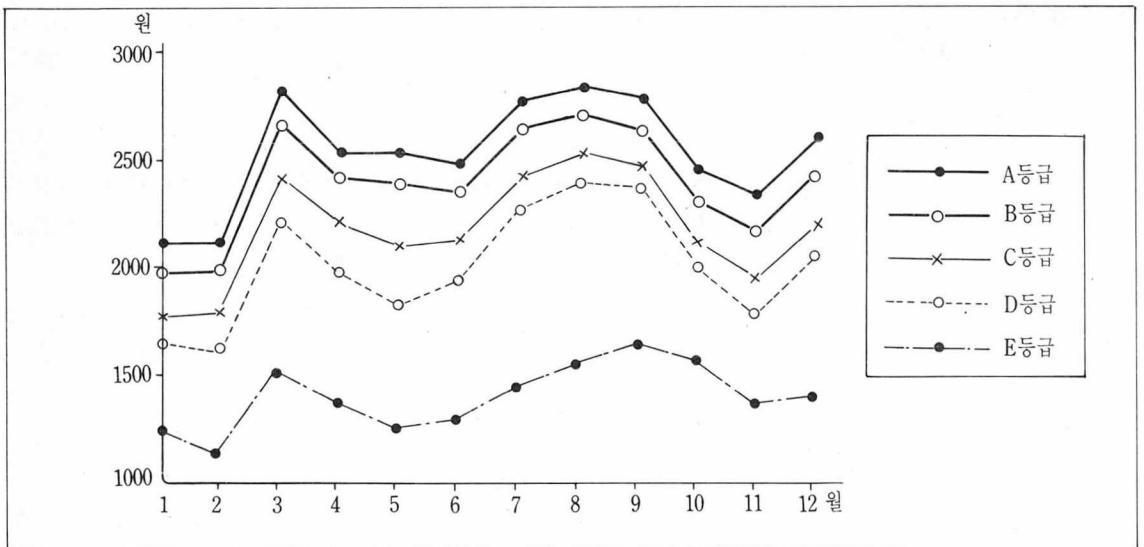
돼지 도체등급제가 실시되지 않던 80년대 돼지고기 유통과정을 조사할 때 항상 경험하게 되는 사실은 식육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가격에 대하여 도매시장에 돼지를 출하하는 양돈농가의 도매시장에 대한 불안감, 식육소매상들의 중매인에 대한 의문, 일반소비자들의 식육소매상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고 있었다. 육류유통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이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있음에도,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몫이 크다는 의혹의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유통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명확한 가치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거래 행위가 갖는 당연한 결과였다.

2. 돼지 도체등급기준 개정의 당위성

현행 돼지 도체등급기준이 우리나라 여건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도매시장에서 월별, 등급별 도체(지육) 경락가격을 알아본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비교적 무난히 등급별로 차별화 된 가격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돼지 도체등급별, 성별 경락단가 및 출현율은 <표



<그림 1> 돼지 등급별, 월별 도매시장 도체 경락단가 변화('93 추공)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경락단가는 전체적으로는 <그림 1>과 같이 등급별로 잘 차별화 된 거래가격이 형성되고 있지만 성별, 등급별로 세분화 하여 분석하면 동일 등급내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모순점이 나타나고, 상위 2개등급에서는 경락가격의 차이가 적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표 1>의 결과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돼지를 거세, 비육하는 것은 암돼지와 같은 육질을 얻을 수 있다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거세된 돼지 도체의 경우 암돼지 도체와 동일한 거래가격을 형성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매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수돼지와 유사한 취급을 하는 미성숙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등급별 출현율에 있어서는 B, C등급 출현율이 너무

높고, A등급의 출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출하체중이 95kg대에서 앞으로는 105~110kg으로 높아지고 거세비육이 보편화 되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고려할 때 더욱 A등급 출현율은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양돈산업의 현안을 국내 돼지고기 시장의 국제화, 즉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해결되어야 할 우선적인 일은 국내산 돼지고기의 국제규격화 생산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돼지는 출하체중이 75kg에서 120kg까지 다양한 현실이고 수돼지가 대부분 거세되지 않고 비육되어 출하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산 돼지고기를 국제규격에 일치되도록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해서는 출하체중이

100~120kg, 평균 110kg으로 높아져야 하며, 육질을 높여 질적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돼지를 거세, 비육시켜 돼지고기를 생산하여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목표가 국내 양돈산업에서 무리없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도체등급기준 내용에서 등급별 상한 도체중 범위가 박피 도체의 경우 A, B등급이 각각 75kg과 78kg으로서 생체중으로 환산하면 112kg과 116kg 정도인데 이를 120kg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하한 체중은 A, B등급이 각각 84kg과 80kg정도인데, A등급의 하한 체중을 90kg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앞으로 시장적응을 고려하여 보완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식육소매상들과 도매시장 유통업 종사자들에게 이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야 되며, 생산농가에게는 출하체중을 높이는 데에 따른 과비육을 막고, 돼지고기 유통업 종사자들과 일반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비육기술의 개발에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공동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표 1> 돼지 도체등급별, 성별 경락단가 및 출현율

등급별 성별	A	B	C	D	E	전 체 평 균
암	2,505 (13.02)	2,404 (47.85)	2,209 (23.75)	1,985 (6.58)	1,370 (8.80)	2,252 (100.00)
수	-	2,143 (6.41)	2,137 (58.43)	1,986 (32.04)	1,457 (3.12)	2,068 (100.00)
거 세	2,262 (2.35)	2,208 (38.77)	2,040 (47.31)	1,732 (11.36)	1,634 (0.21)	2,075 (100.00)
전 체	2,504 (7.15)	2,375 (29.54)	2,159 (39.32)	1,984 (17.82)	1,389 (6.17)	2,169 (100.00)


주: ()내는 출현율임. *94. 1~12 축협서울공판장 출하 돼지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돼지 도체등급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상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과 너무 차이가 나는 이상적 도체 등급기준은 현실적으로 수용에 장애가 됨을 생각치 않을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 돼지 사육농가들의 비육기술 수준이나 돼지 품종개량 기술수준을 반영하여 등급기준에서 등급별 등지방층 두께 범위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맺는 말

돼지 도체등급기준의 개정 또는 보완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때 항상 의견이 분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문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보다 이상적인 면이 강조될 것이고,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목표 지향적인 될 것이며,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너무 현실 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분한 문

제의 제거나 접근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돼지고기 생산이나 시장여건이 급속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속에서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어떠한 것이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발전의 길인가를 생각한다면 변화에 너무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 보다 합리적인 도체등급제의 조기정착을 기원해 본다. 

자 동 화 설 비

- 금 이 : 오거, 디스크, 습식급이기
- 환 기 : 송풍, 배기, 분무시스템
- 보조사료 : 하이블랙, 이-에이드
- 기 타 : 국내외 양돈기자재

신용을 신조로 하는  **건 지 축 산**

주소 : 전북 이리시 동산동1046-2
전화 : (0653) 842-0255~8